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함

성경: 마 7:1-12, 18:1-35

- I.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에 관한 것이며, 왕국 백성에 대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은 왕국 백성에게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 비교 사 9:8-9.
- A. 왕국 백성은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서 겸손한 영으로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판단한다 — 마 7:1.
1.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로 판단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의로 판단받을 것이고(마 7:2), 다른 이들을 공홀로 판단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공홀로 판단받을 것이다. 공홀은 판단 곧 심판을 이긴다 — 약 2:13.
 2.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자신을 거절하고 그들을 고려하며,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공홀을 베풀어야 한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나게 해야 한다 — 마 7:3.
 3. 들보가 우리 눈에 남아 있다면, 우리는 시각이 흐려져서 분명하게 볼 수 없다 — 마 7:4-5.
- B. 우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우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 마 7:6.
1.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객관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여러분의 진주’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2. 개는 발굽이 없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는다. 돼지는 굶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둘 다 부정하다 — 레 11:27, 7, 비교 행 10:1-15, 28.
 3.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19절부터 22절까지와 빌립보서 3장 2절의 계시에 따르면, 여기의 ‘개’와 ‘돼지’는 종교적이지만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4.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중한 체험을 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일 역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감지하고 판단해야 한다.
- C. 사람들을 접촉하고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접촉하는 합당한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 마 7:7-8, 딤후전 5:1-2.
1.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간구하는 것이며, 두드리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도 진지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2.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왕국과 그 영에 따라서 접촉하는 것이다 — 마 7:9-12, 비교 눅 11:13.
 3. 하나님의 영 안에 체현된 풍성을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을 먹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 비교 눅 11:1-13.
 4.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다른 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기를 배워야 한다 — 비교 대하 1:10.

II. 왕국 생활과 하나님-사람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어떤 믿는 이도 멸시하지 않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 — 마 18:1-35, 5:48, 7:13-14, 롬 14:17.

- A. 왕국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 마 18:2-4.
- B. 왕국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어떤 것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 마 18:5-9, 비교 11:6.
- C. 왕국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작은 믿는 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 — 마 18:10-14.
- D. 왕국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한없이 용서해야 한다 — 마 18:21-35.
 - 1. 우리는 죄를 지은 형제를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 마 18:21-22.
 - 2.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 a.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을 다 갚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 마 18:23-26.
 - b. 우리와 주님의 교통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패배함으로 진 빚을 면제하여 주셨다 — 마 18:27.
 - c.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빚은 우리가 주님께 진 빚에 비하면 너무나 적다 — 마 18:28.
 - d.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것이다 — 마 18:28-31.
 - e. 만일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는 시대에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 마 18:32-35, 비교 막 11:25-26.

III.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다섯 종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고 인식해야 한다.

- A. 영원한 용서. 이것은 생명과 관계있다.
 - 1. 우리가 구원과 함께 얻은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다.
 - 2. 일단 우리가 용서받으면 영원히 용서받은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받은 것이며, 의롭다 함을 영원히 받은 것이다 — 눅 24:47, 롬 4:7-8, 시 103:12.
 - 3. 우리는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없애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 행 10:43, 히 8:12.
- B. 대표를 통한 용서. 이것은 교회와 관계있다.
 - 1. 주님은 그분의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셨을 때, 교회에게 이 땅에서 그분의 대표가 될 것을 명하셨다. 이제 교회를 통해 용서가 주어진다 — 요 20:22-23.
 - 2. 대표를 통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갓 구원받았는데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에게 “당신은 오늘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 C. 회복의 용서. 이것은 교통과 관계있다.
 - 1.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유죄 판결하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중단된다 — 행 24:16, 딤후 1:5, 3:9, 딤후 1:3.
 - 2.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생명의 관계는 결코 변할 수 없지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손상할 수 있다. 우리가 교통 가운데서 용서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들과 잘못들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한다 — 요일 1:7, 9, 2:1-2.
 - 3.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도 자백해야 한다 — 마 5:23-24.

4.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안에 계속 두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 시 51:12, 잠 15:13상, 17:22상, 15:15하.
 5.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안에 계속 두는 것이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며, 이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달콤한 교통을 회복해야 한다 — 요일 1:9.
- D. 통치상의 용서. 이것은 징계와 관계있다.
1. 이러한 종류의 용서는 하나님의 안배와 주권과 징계와 손길과 관련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것은 그분의 행정이다.
 2. 하나님의 통치상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하시고 다스리시며 다루시는 방식과 관계있다 — 갈 6:7.
 3.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방식을 바꾸실지도 모른다.
 4.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삼하 12:13, 시 51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야의 아내가 낳은 아들을 죽게 하였고,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다(삼하 12:7-15).
 5.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징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분의 권능의 손아래에서 겸손해지기를 배우는 것이다(벧전 5:5-7).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을 거절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6. 모세는 므리바에서 반석을 친 후에(민 20:10-12, 24, 27:14),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 아래로 떨어졌다.
 - a.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모세는 화를 냄으로써 거룩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지 못했고, 반석을 두 번 찌므로써 그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손상한 것이다.
 - b. 비록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동반자로 여겨지기도 했지만(출 33:11), 이 일 때문에 그는 좋은 땅으로 들어갈 권리를 잃어버렸다.
 - c.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야 하며,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그분을 거룩하시게 하는 것이다.
 7.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기를 배우고, 항상 용서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가볍게 비난하고, 다른 이들을 쉽게 유죄 판결하며, 다른 이들의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불평하고, 다른 이들에게서 받은 부당한 대우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엄격하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엄격하실 것이다 — 마 6:15, 18:23-35.
 - a.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한다 — 시 2:11-12, 86:11, 고후 5:10-11, 사 11:2.
 - b. 다른 이들이 곤경에 처할 때, 이때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때이지 그들을 비난할 때가 아니다 — 비교 창 14:14-16.

c. 오늘날 많은 형제들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에 너무 심하게 다른 이들을 비난했다. 오늘날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약점들이 과거에 그들이 비난했던 바로 그 약점들이다.

d.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을 피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배우기 바란다 — 엡 4:32.

E. 왕국의 용서. 이것은 행정과 관계있다.

1.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영을 가진다면, 우리는 왕국 시대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 눅 6:37-38, 마 18:33-35.

2. 우리가 비열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무자비하게 다른 이들을 비난한다면, 하나님은 장래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실 것이다 — 마 7:1-2.

3.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비열하거나 날카롭거나 엄격하게 다른 이들을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럴 때 우리는 그날 하나님에게서 긍휼을 얻을 수 있다 — 마 5:7, 비교 딤후 1:16, 18.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통치상의 용서

성경에는 또 한 가지의 용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치상의 용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종류의 용서는 다음의 성경 절들, 곧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9장 2절, 5절과 6절,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절에서 언급한 용서를 하나님의 통치상의 용서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상의 용서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상의 용서’가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몰래 먹은 어린 소녀의 비유를 들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소녀의 어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집 안의 모든 문을 열어 놓았을 것이다. 부엌문이나 찬장문도 다 열어 놓았을 것이다. 찬장에 많은 음식이 들어 있었음에도 그 어머니는 문을 잠그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날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찬장 속에 있는 음식을 몰래 먹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안 이상 딸은 도리 없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어머니는 딸에게 입 맞추고 딸을 용서한다. 어머니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면 문제는 정리되고 교통이 회복된다. 그러나 다음부터 그녀는 밖으로 나갈 때 문을 잠그기 시작한다. 그녀는 방식을 바꾸어 버렸다! 교통과 통치는 별개의 문제이다.

통치란 무엇인가? 통치는 일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행정이다. 어머니는 딸의 죄를 용서하면서 “이미 음식을 먹었으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추궁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딸을 용서하고 교통은 회복된다. 딸이 어머니를 볼 때, 여전히 행복하고 친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어머니가 외출할 때에는 찬장문과 부엌문을 걸어 잠글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교통은 회복될 수 있어도 방식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또 그렇게 할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이제부터 딸에게 이전과 같은 자유를 주지 않는다. 그녀는 일종의 제한을 둔다. 방식이 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통의 방면에서 용서는 쉽다.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는 이들에게 교통은 쉽게 회복된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그분 사이의 교통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

게 임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분방하고 느슨하게 있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은 징계의 손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통치상의 용서를 받는다. 시간이 흐르면 어머니는 딸이 다시 신뢰할 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부엌문을 다시 열어 둘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통치상의 용서라고 한다.

교통의 용서와 통치상의 용서는 별개의 문제이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네 시에 나가서 놀라고 하면서 여섯 시까지는 저녁을 먹으러 돌아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싸웠다고 하자.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죄를 자백한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용서하고 다음 날 다시 나가서 놀게 했는데, 그때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또 싸우게 되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매일 죄들을 자백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매일 용서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훈육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다. 그는 아이들을 매일 나가게 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아마 그는 “너희가 밖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부터는 집에 있어야 하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손길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을 사용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분과 우리의 교통은 회복될 것이지만, 그분은 방식을 바꾸실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통치상의 손길을 쉽게 거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실 때에야 그분의 통치상의 손길을 거두신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밖에 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집에 있으라고 하면서 자유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과 말다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며칠이나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그들을 통제한다. 때가 되면 아버지는 “너희는 지난 두 달 동안 바르게 행동했다. 내일은 십 분 동안 나가서 놀 수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통치하는 손길이 거두어졌다. 이것을 보았는가? 이 십 분을 우리는 통치상의 용서라고 말한다. 통치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아버지는 이 십 분 동안 아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만일 아이들이 싸우지 않으면 그다음 날에는 삼십 분 동안 노는 것을 허락한다. 좀 더 지나면 노는 시간을 한 시간으로 늘릴 것이다. 한두 달이 지났을 무렵, 아이들은 네 시부터 여섯 시까지 놀 수 있게 된다. 그날이 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통치상의 용서가 온전히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형제들이여, 통치상의 용서란 무엇인가? 통치상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나 대표를 통한 용서나 교통 방면에서의 용서와는 완전히 다르다. 통치상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다루시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됨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통치상의 용서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대해 말한다. 만일 아버지가 자녀를 응석받이로 키웠다면, 아이들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항상 다른 이들과 다투고 말다툼을 하며 동떨어진 의견을 고수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을 것이다. 사람은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어느 누구도 이 법칙을 바꿀 수 없다. 이 법칙은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조심하여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임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을 격동시킨 후에 그 손을 옮겨 가게 하기란 쉽지 않다. 한번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은 쉽사리 그것을 거두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중풍병 환자의 병을 치료하신 것은 통치상의 용서임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율법학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여,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마 9:2)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여

러분이 통치상의 용서를 모른다면,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중풍병 환자는 믿음을 표현한 적이 없고, 그를 침상에 나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여,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 중풍병 환자가 주님께 이끌렸을 때 구원받았다는 뜻인가? 만일 그러하다면, 구원은 아주 쉬운 것이 된다. 사람이 주님께 이끌리기만 하면, 그의 죄들이 모두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은 확실히 영원한 용서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대표를 통한 용서나 심지어 교통 방면에서의 용서와도 관련이 없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용서이다.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를 보여 주신다. 하나는 그가 죄들을 용서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간 것이다. 많은 병이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따른 결과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중풍병 환자가 치료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그는 먼저 통치상의 용서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용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질병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그분께서 용서하신 것은 분명히 중풍병과 관련이 있다. 이 사람은 치료를 받기 위해 왔고, 주 예수님은 그의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바꾸어 말해서, 그의 죄가 용서받으면 그의 병이 낫는다는 것이다. 그의 병은 죄와 관계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병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죄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죄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들었던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그의 병은 사라진다. 이것이 통치상의 용서이다. 통치상의 용서가 임하면 질병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이런 죄는 확실히 통치를 위배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중풍병 환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위배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병들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하면, 그는 일어나서 그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이러한 용서는 다른 종류의 용서와는 다르다. 이것이 통치상의 용서이다.

교회의 장로들이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통치상의 용서를 받게 함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은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며, 주님은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들을 지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용서는 아주 특별한 것 같다. 병든 형제가 있을 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할 것이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형제를 일으킬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질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을 보았다.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야고보서 5장의 경우, 병든 사람이 죄를 자백함으로써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의 기도로 용서받았다. 어떻게 해서 교회의 장로들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자 병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런 죄는 대체 어떤 죄인가? 이런 방식은 영원한 용서나 대표를 통한 용서나 교통 방면에서의 용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가령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의해 병에 걸렸다고 하자. 이것은 그가 죄를 지어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것이다. 그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이 와서 “형제들이 그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이 형제가 생명의 흐름에 들어가도록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에서 온 관유가 그에게 한번 더 흐를 수 있도록 그의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라고 그를 위해 간구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교회가 이렇게 할 때, 이 형제는 회복된다. 많은 경우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른다. 하나님께서 통치상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즉시 그 사람의 질병이 치료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상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에게는 “만일 그가 죄들을 지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의 죄와 다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야고보서 5장이 통치상의 용서에 대한 장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떨어졌다면, 그분은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을 때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떨어진 다윗

통치상의 용서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다윗의 예를 보아야 한다. 성경에서 다윗과 우리야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통치상의 용서를 분명히 말하는 곳은 없다. 다윗이 저지른 두 가지의 죄는 간음과 살인이다. 간음죄는 우리야의 아내에 대한 것이고, 살인죄는 우리야에 대한 것이다. 시편 51편과 다른 시편을 읽어 보면, 우리는 다윗이 실수한 후에 어떻게 그의 죄들을 자백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와 더러움과 거리낌이 있다고 느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죄를 자백했다. 이것은 다윗이 51편의 자백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러한 교통의 회복은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게 하셨다. 여러분은 사무엘기하 12장 13절에서 나단이 한 말을 특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말하자,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고 말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죄들을 자백했고 자신의 범 죄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더럽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자백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고 대답하셨다. 분명히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들을 용서하셨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단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14절)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또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10절)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11-12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분은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를 죽게 하시며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분은 압살롬이 반역하여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아내들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셨다. 다시 말해서,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징계는 즉시 떠나지 않는다.

내가 솔직한 말을 하겠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다. 교통도 빨리 회복될 수 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속히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심지어 그가 죽은 후에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 위에 있는 한, 그분의 통치는 다윗을 떠나지 않는다. 이 일 후에 다윗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다. 다윗이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손길이 다윗 위에 임하자 그의 아들이 죽었다. 이어서 장자 암논이 피살되었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칼이 영원토록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의 죄들을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통치상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기를 배움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통치상의 손길을 바로 거두시지 않는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두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상의 손길을 대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 그분은 영성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에 손상을 입히는 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쉽게 회복된다. 그러나 그 누

구도 주변 환경에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신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기를 배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저항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통치상의 손길을 쉽게 거두어 가실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고, 화를 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며 분통을 터트린다면, 하나님께서 통치상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십 년 전에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했을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을 오늘도 마주하게 된다. 여전히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일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고개를 숙이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져야 하고,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저항할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을 거절할수록 더욱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여러분은 겸손해야만 한다. 거스르는 생각을 모두 제해야 할 뿐 아니라,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가려고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갈 수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이, 우리를 현재 상황에 떨어지게 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가령 한 형제가 어려서부터 단것을 좋아하여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치아가 다 썩었다고 하자.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느꼈다.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그에게는 치통이 생겼다. 그는 하나님께 먹는 것에 탐욕을 부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다. 하나님은 간단히 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의 치아가 정상으로 회복될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치아의 상태는 변함없이 좋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다. 사탕을 먹으면 충치가 생기게 마련이다. 우리가 약함을 자백할 때 교통이 회복될 수 있지만, 이 회복이 우리가 자백한 후에 새 치아가 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볼 때, 우리는 그 아래에서 겸손하기를 배우야 한다. 충치가 생긴 치아가 정상으로 회복될 길은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거두어지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떨어지는 것은 엄중한 일임

성경 말씀 중 한 부분을 보자. 프리바에서 반석을 친 일로(민 20:10-12),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떨어졌다. 아론이 실패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남아 있게 하였고 그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회복하셨다. 비록 아론이 제사장의 의복을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도 반석 옆에 있었을 때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기를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고 평정심을 잃어버렸다. 그는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이 그분의 종들에게 임하였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멈출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항상 예전처럼 우리를 대해 주실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아마 어느 날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바꾸실 것이고, 우리가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성경 안에는 이런 일들이 가득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민 13-14장),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것을 보고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건장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마치 매뚜기 같았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쓰러졌다. 나중에 이스라

엘 백성은 죄를 자백했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여기셨고 은혜로 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어떤 지분도 가질 수 없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시는 그 경로에 끝까지 머무를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 느슨하게 생활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공흠을 베푸시지만, 그분의 방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은 참으로 엄중한 문제이다! 나는 주님께 직업을 내려놓고 나와서 주님을 섬기라는 부름을 받은 한 형제를 알고 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직업을 내려놓는 문제를 고려할 수 없었다.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직업을 내려놓거나 온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때 이후로 그는 약할 때도 있었고 강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후에 그가 다시 돌아와서 이 길을 가려고 했지만 기회는 이미 사라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언제 우리 위에 임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열 번 거슬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지만, 열한 번째에는 그냥 두시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그가 한 번만 거슬러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손을 대실지 알 수 없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에 따라 일하신다.

나는 언젠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려고 했던 자매를 알고 있다. 나중에 그녀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 별로 좋지 못했다. 그녀가 좋지 않은 결혼을 함으로써, 빛 비춤이 그녀 안에서 멈추어 버렸다. 이제는 그녀에게 이 길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그녀 위에 임한 것이다. 오늘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든 그녀를 돌이키게 할 수 없다. 그녀에게 빛이 차단되어 볼 수 없게 되었다. 마치 너울이 그녀 앞을 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녀는 빛 비춤을 받을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공흠을 구함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흠히 여기시고 은혜로 대하셔서, 그분의 통치상의 손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떨어지면, 우리는 서둘러 빠져나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항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라.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놓지 말라. 물론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공흠히 여기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공흠히 여기셔야만 우리는 이 문제를 통과할 수 있다. “주님, 저를 공흠히 여기시고 제가 통과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공흠을 항상 구하라.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여 우리를 병들게 할 것이다.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할 것이다. 그럴 때 결코 육체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주님, 이것은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안배입니다! 저는 기꺼이 따르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육의 위에 임했을 때(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육이 그것을 받아들일수록 그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의를 말할수록 그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항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 나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쉽게 거두어진다고 믿는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귀한 가르침이다. 5장은 교회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을 거두어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사람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혹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형제가 그 문제에 대해 빛 비춤을 받고 교회가 그를 대신해 기도한다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하시며 징계하시는 손을 거두어 가신다.

한번은 바버(M. E. Barber) 자매님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한 형제가 좋지 않은 일을 범하고서 후에 회개하고 바버 자매님을 만나러 왔다. 바버 자매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당신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본래 저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던 그릇이었으나 이제는 그릇이 깨졌습니다.’ 당신은 결코 주님께 ‘주님, 반드시 저를 또 다른 그릇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겸손히 주님께 ‘주님, 저를 공활히 여기시어 다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저는 제가 그릇이 되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께 어떻게 하시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든지 천한 그릇으로 만드시든지 다 옳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계속 그릇으로 남아 있게 하여 그를 더욱 영광스럽게 해 주시기를 요구한다. 물론 때로는 저주 아래서 축복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많은 처리를 거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상의 손길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에서 도망갈 수 없으며 다만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밖에 없다. 갈수록 우리는 이것에서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아래서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은 주님께 ‘주님, 당신의 안배는 언제나 제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저의 마음을 당신 앞에 겸손히 낮출 수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일에서 우리는 함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자매가 누군가와 결혼하려고 할 때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나는 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자매는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와 결혼했다. 칠팔 개월 후에 그 자매는 긴 편지를 내게 보내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 자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나는 그 자매에게 답장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게 말해도 소용이 없고 어떤 사람도 이 상황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자매님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 아래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매님이 몸부림치고 저항한다면 당신의 그릇은 깨질 것이고 다시는 나아갈 길이 없게 됩니다.” 나는 그 자매에게 또다시 내게 편지를 보내는 것조차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엄중한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자주 오늘날 교회 안의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마당에 널린 깨진 그릇과 항아리와 병을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이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 내가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이들에게 관대해야 함

마태복음 6장 15절과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대해 말한다. 이 절들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한다면 그 정죄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은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다. 주님은 여러분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용서는 통치상의 용서를 가리킨다. 이 용서는 다른 종류의 용서와 별개의 문제이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은 ‘내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영원에 관한 문제가 이미 해결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 통치상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관대하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의 행위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게 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일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깊이 파내실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에게 엄격하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엄격하실 것이다. 만 달란트의 빛을 면제 받은 노예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노예를 만났을 때, 그의 목을 조르며 감옥에 넣어 버렸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는 화가 나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 버리셨다(23-35절). 만일 그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그의 위에 임했고, 그는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일에서 관대하기를 배워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결단코 함부로 사람에게 대해 말하거나 비평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경우,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대해 함부로 말하고 비평하는데,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형제에게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혹 그는 금세 병에 걸릴 것이다. 때때로 여러분은 어떤 이의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 옆에 서서 그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지난 후에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발생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말을 부주의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 것이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훈련 아래 두시면서 그분의 징계에 대해 배우도록 가르치신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징계에 순종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어떤 일도 함부로 말하거나 비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남의 일을 상관하지 말고, 험담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격동시켜 여러분 위에 임하게 하는 것은 유익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극히 큰 문제이고, 또한 아주 엄중한 문제이다! 다른 사람의 일이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함부로 말함으로 우리가 정죄한 일이 우리 위에 임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매우 실지적인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다. 우리는 관대하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관대하게 사람을 대할수록 하나님도 여러분을 관대하게 대하신다.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안다. 여러분이 형제를 인색하고 엄격하게 대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색하고 엄격하게 대하신다. 여러분은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관대하게 형제를 대하기를 배워야 한다. 많은 일들에 있어서 험담을 하지 말고 비평하지도 말라.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두라. 사람들이 곤란을 당할 때는 우리가 도울 때이지 비평할 때가 아니다.

시대의 끝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옥에 가두며 헐벗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양들은 그들이 옥에 갇힐 때 찾아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이는 이들이다. 이 모든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겪도록 정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고난을 더 겪으라고 무엇을 더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여러분은 그들에게 관용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박해를 받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그에게 고난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통치상의 징계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사람에게 관용과 자비로 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관대히 사람을 대하도록 공과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많은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다.

많은 형제들이 형편없이 넘어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남에 대해 너무 지나친 비평을 했

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은 거의가 다 과거에 그들이 남을 비평한 것들이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 관대해야 한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관대히 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행위에서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형편없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앙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 필요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행한 일은 어리석고 항상 문제가 됩니다. 만일 당신이 저를 통치상의 손길에 두시면 저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해질수록 여러분은 쉽게 통치상의 손길에서 벗어나지만, 교만하고 완고하며 자기 확신에 찰수록 문제가 되고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겸손하기를 배워야 한다.

겸손하고 순종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이 지나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에 떨어졌다면, 우리는 작은 이유로든 큰 이유로든 결코 거역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거역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떨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자신을 겸손히 낮춘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시고 놓아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고 느끼실 때 우리를 놓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때가 되면’이라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바로 ‘때가 되면’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구를 열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곧은 길을 주실 것이며, 때가 되면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특별히 징계를 가리킨다. 이것은 보호의 뜻이 아니다. 만일 보호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주님! 당신의 말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떤 위치에 두셔도 대항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저를 대하시는 것에 대하여 저는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즐거이 듣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 안에 얼마나 있으라고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때가 되면’을 볼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 주님은 여러분의 때가 왔다고 느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움직이셔서 교회의 기도로 여러분을 해방하실 것이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믿자마자 하나님의 통치를 알기 바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은 첫날과 첫해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알기 바란다. 그럴 때 그들은 가장 합당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50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144-164쪽)*